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6. 28(금) 15:00 ~ 18:4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 1. 성원 보고

### ○박종관 위원장

- 2019년 6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7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을 비롯한 심의지원 결정의 건이 5건이고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기본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신임 사무처장 전효관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창주 위원님과 이승정 위원님이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 10인 중에서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보고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5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하기 전에, 지난 6월 7일 임시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전효관 신임 사무처장이 3일에 상견례를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시작하고 첫 위원회인 만큼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6월 13일에 일을 시작해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맞이한 일도 있어서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개회 선언

### ○박종관 위원장

- 제 25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제251차 회의에서는 5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3개 안건은 원안대로, 2개의 안건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2차 임시회의에서는 1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결과를 보고 받으셨고 이제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7개 의결안건 중에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19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749호 2019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를 해서 총 562건이 신청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신청 및 예산배분은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예산 배분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원신청건수와 지원신청액을 각각 50%씩 반영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의 후보자는 3배수 적격자를 지정해서 해당 분야의 비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섭외해서 위촉하였습니다.  
분야별 총 5인, 공연예술분야는 총 8인으로 구성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8페이지의 밑을 보시면 심의회의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전수검토제를 적용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지원심의 선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 시각, 다원, 전통, 공연 등 5개의 분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신청건수는 562건이었고 그 중에서 지역은116건이었습니다. 선정건수는 562건 중에 110건이 선정되었고,

그 110건 중에 44건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정대비 지역건수 비율은 40%입니다.  
그리고 심의제척과 회피 현황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원심의 결과발표는 7월 2일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선정자 대상 워크숍 추진은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을 보시면 지원심의 결정내역과 분야별 심의 총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람이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수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들에게 심의위원의 우선순위를 받아서, 1순위부터 연락을 하시죠?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거나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김혁수 위원

- 그러면 전화한 기록을 남기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기록까지는 아니고, 이 분에게 언제 전화를 했는데 왜 못하신다고 했는지까지는 합니다.

○김혁수 위원

- 다 남아 있다는 겁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시간까지는 저희가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섭외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다음 순위” 이렇게 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저희가 전화를 안 하고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혁수 위원

- 보통 핸드폰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무실 전화로 하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보통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김혁수 위원

- 핸드폰 번호로 하면 혹시 못 받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전화 문의가 없잖아요? 사무실로 해야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문자메시지를 남겨서 “언제까지 전화를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러면 그런 기록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했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그런데 문서상으로 몇 시 몇 분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안 남아 있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제가 만약 이번에 심사한 것에 대해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통화기록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한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정심의부나 다른 부서와도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일단 사무실번호로 심사위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별로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남죠? 기록이 안 남으면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어떤 이야기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인데요. “사무처 담당직원이 권력화가 되어 있

다.”, “심사위원 선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위원들이 1순위, 2순위, 3 순위를 정해줘도 전화통화를 통해서 담당자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원들은 순위만 정해줬으니 공정하다고 떠들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한 두건이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쓸데없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입이라는 것이, 1순위한테 전화를 안 하고 2순위로 넘어간다는 의미신가요?

○김혁수 위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줬는데, 1순위와 2순위가 마음에 안 들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담당자 선에서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담당자가 몇 시에 어디로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분이 언제까지 답변을 안 했는지, 그런 식의 섭외하는 경과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다 공정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오늘 의안번호 제754호의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 계획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혁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정한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김혁수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끝나고 기타토론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하시죠.

○김혁수 위원

-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뭣뭣하고 간단한 것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혹스럽네요. 현장에서는 심사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저도 여태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2개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위를 부여해서 사무처에 전달

하는데, 이렇게 위원이 뭐하고 있냐는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요.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핸드폰으로 연락 했는지 사무실 전화번호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꼭해해서 해석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불편하니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기숙 위원

- 현장에서의 질문이 뭐냐 하면, 사무처에서 구성한 5명에 우리는 순위만 매깁니다. 1번이 안 되고 2번도 안 되면 3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됐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회의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처음 5명을 선정하고 누가 선정 됐는지에 대해서 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구를 심의위원으로 하고 싶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힘이 사무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위만 매기고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잊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공정심의부장님이 와 있으니까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 안건을 논의할 때 이 내용을 함께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이것은 지원심의를 결정하는 건이니까 결정과 관련된 의견들을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 ○김기봉 위원

- 지원심의 선정결과에 예비후보가 1~2명 이상이 있는데 뮤지컬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 선정된 것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뮤지컬은 그 하나를 위해서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뮤지컬 예비후보를 일부러 안 뽑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비후보를 점수로 결정 할 것이지요?

#### ○박종관 위원장

- 질문을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뮤지컬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후보가 없죠?

####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공연창작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다른 분야의 예비후보도 해당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계획의 충실성 부분들이 최소한의 수준이 인정될 경우에만 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탈락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예비후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에 대해서는 억지로 예비후보를 뽑을 수 있는 내용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뮤지컬 담당위원들께 질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뮤지컬 분야는 예비후보를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김기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만약 선정된 팀 중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면 재심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채점순위대로 예비를 뽑을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 심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김기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만일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 되나요?

○나종영 위원

- 그럴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야죠. 예비후보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김기봉 위원

- 공연 쪽 제작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가 지났고, 이후에 재공모를 했을 때 수준 있는 작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을 고려해서 작품의 질보다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장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작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점수 순위대로 예비후보를 지정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요청합니다.

○이희경 위원

- 불용액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차년도 저희 사업예산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작산실 안에 많은 세부내역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뮤지컬 쪽의 잔여예산이 발생했었습니다. 거의 3억원 정도의 잔여예산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도 포기자가 생긴다면 3억원의 잔여예산에 해당 금액을 없어서 다른 트랙으로 신규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재공모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그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의위원이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내린 판단을 위원회가 “예비후보를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들이 너무 깊게 심의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종영 위원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예비후보를 선정 하지 않았는데 “차순위를 넣어라”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여기서 종결을 하죠.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희경 위원

- 지역안배를 따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셨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40%가 선정된 것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일단 각 분야별로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총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사실 처음 논의한 단계로 따지면 분야별로 온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추천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고 조금 부족하지만 지역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것은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116건에서 44건이 선정되면서 지역에서 거의 37.9%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가 선정된 것이고, 사실 시각 쪽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우대라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40%에 맞춰서 선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지역쿼터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40%의 원칙이 중요하다면 별도의 트랙으로 따로 모아서 심의를 해야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도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희경 위원

- 지역건수의 비율을 보면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예술은 지역이 굉장히

높고, 음악이 50%,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뮤지컬이 25%로 제일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심의위원들한테 공통적인 안내를 드리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문학에는 예비가 정해져 있고 지원 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비 순위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예비 순위대로인지는 불명확하고 지원 결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포기가 생길 경우에 예비후보 중 누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가 결정되는지가 자료상으로 결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시각의 경우 비평발간지원, 사전연구지원, 기획전시지원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평발간에서 300이 나가는데 기획전시에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평발간에서 안 되면 비평 1순위,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김기봉 위원

- 뮤지컬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원 사업의 제공모가 나갔습니다. 창작지원부분에서 제공모가 나간 유일한 것이 뮤지컬로 기억 합니다. 저는 여전히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경험을 심의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정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창작부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봉 위원

- 아까 작품의 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예술작품의 질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죠.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위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예술지원 정책으로 지원심의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도 그 문제 때문에 파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박종관 위원장

- 이 문제를 질문하는 핵심이 뭔가요? 현장이 원하는 심의제도를 못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예비후보를 안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핵심입니까?

○김기봉 위원

- 작년에도 뮤지컬 부분을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공모를 내지 말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억의 불용액이 생기면 제공모에 들어

하겠다는 대안을 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니까 양한성 창작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김기봉 위원

- 매년 뮤지컬에서만 이 부분이 반복되니까요.

○나종영 위원

- 이것은 그 정도의 예술성이 없다는 것으로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장르라도 예비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해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이 건은 이미 결정이 나서 만약 불용이 되면 재공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왜 이번 심의에 예비후보를 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예비후보 10% 내외 원칙은 세부장르별 10% 원칙이 아닙니다. 전체 43건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10% 내외 즉 4~5건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확인을 했고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세부장르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로 1건을 선정하면 10% 내외의 원칙을 맞출 수 있는 계수였기 때문에 뮤지컬도 재차 심사위원들께 여쭙봤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쪽에서는 내용적으로 검토했을 때 무리하게 1건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산실에 불용액이 2억 8,500만 원정도가 됩니다. 뮤지컬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합쳐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본 공모가 있었다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사라진 연극, 뮤지컬 쪽이 대본 쪽이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현장에서 재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문을 얻어서 지원 계획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 달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청년예술가생애첫사업이고 앞서 뮤지컬과 관련된 부분은 뮤지컬창작 쪽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뮤지컬제작 쪽으로 몰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묶어서 뮤지컬 쪽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한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창작산실의 7억 5,000만 원이 잔여예산으로 남은 것을 연말에 창작활성화프로젝트로 소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게 창작산실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재공모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예술가들의 첫 지

원사업입니다. 질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를 선정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뮤지컬 분야에 예비후보를 선정하지 못했으면, 공연예술분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극분야의 선정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연극분야의 예비후보를 선정하자고 위원회에서 의결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공모는 어렵습니다. 공연예술분야의 예산중에서 뮤지컬분야 대상이 없다고 하면 다른 세부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됐습니까?

○김기봉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원래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역 선정율 40%를 논의하다가 김기봉 위원님께서 급한 질문을 하셔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선정율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선정율 40%를 지키기 위해서 심의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강홍구 위원

- 지역을 감안하자는 논의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해에 선정하는 데에 난항이 있었다고 결과를 보기도 전에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그 기조를 유지해보고 결과나 추이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희경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신청대비 선정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19.6%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19.6%면 20% 미만인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생애첫지원이라는 것은 ‘뉴스타트’ 나 ‘첫술’ 이라는 표현을 쓰는, 신진예술가들이 지원을 받는 문턱 낮은 제도여야 하는데 선정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종영 위원

- 신청자가 많았으니까 별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죠.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결정금액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무처에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까 논의 중에 나온 것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후보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심의에 따른 지원액은 사무처로 위임 진행 예정이라는 코멘트가 달려있습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사무처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위임한다는 표현이 맞고 선정된 대상이 포기를 했을 때 지원규모의 금액 내에서, 그리고 뮤지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뮤지컬 분야에 대해 포기가 발생할 경우 선정비율이 제일 낮은 연극분야의 후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수정의결이 아니라, 어떤 금액의 결원이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의결안에 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더 집어넣으려면 수정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 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19년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안건번호 제750호 2019년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이 사업에 13건이 신청되었고 11건이 선정되어 3억 1,000만 원이 지원결정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모 추진계획이 원안의결 되었고, 5월 20일에 사업공고를 해서 6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0일에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협업사업 이해도, 파트너십 구축여부, 협업의지, 사업수행능력, 사업 확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건 중에서 11건이 선정되었고 47페이지를 보시면 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주)골드코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이 공모사업은 민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받은 광역 혹은 기초재단, 공공기관으로 지원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또 용인문화재단과 삼성전자가 함께 하는 ‘Fall in Busking’ 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7월 1일에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에는 지원심의 총평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본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파트너가 문화재단, 광역재단 쪽으로 꼭 해야 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나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저희가 후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신력 있는 재단이 참여해서 기업들의 후원을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받고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후원우수기관 인증도 하고 있고 관련 사업에 관해서 2020년에는 정시공모 때 사업을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마련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좋은데요. 문화재단들의 공신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더부어서 민간에 기회를 주는 것이 문화 재단한테 긴장감을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민간이 공신력을 가지게 하는데 예술위원회가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심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 1,000만 원인데 세종문화회관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벽산엔지니어링’과 하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용인문화재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2건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세종문화회관은 공연 쪽은 ‘벽산’ 그리고 전시 쪽은 ‘하나투어’와 했습니다. 심의위원들께 1개 재단에서 2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 결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개 사업 모두 좋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용인문화재단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용인문화재단은 심의 총평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장소가 삼성전자 사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버스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지원을 매칭까지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말부터 3주간 지원신청 접수를 받았고 총 184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서류 및 영상 심의와 2차로 인터뷰 심의를 거쳤습니다. 1차에서 28건을 선정했고 2차 인터뷰 심의에서 23건의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총예산 4억 원을 모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르별 심의위원 5인을 적격자 지정 방식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원예술분야가 중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특성 방향에서 규정에 따라서 유관기관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까지 해서 7인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결정현황을 보시면 184건 중에서 23건에 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붙임으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751호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지원율이 굉장히 낮네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응모건수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경우 저희가 예술지원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사실 비고에 장르표기는 했습니다만 순수 기성 작업방식으로 이루어진 방식보다 각종 기술이나 타장르와 결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고는 신청자들이 저희 지원신청 시스템에 표기한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당수는 모두 다원 베이스입니다. 융복합 베이스여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융복합예술지원을 70억으로 넘긴 부분이 잘 수용돼서 편성된다면, 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심사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성 장르를 발전 시키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험’이라는 용어에 혼동이 있어 사업명 변경도 제안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실험활동’이라고 하니까 지원단체들이 융복합사업과 동일시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올해의신작이나 창작산실의 프리프로덕션 등 다원예술 쪽으로 인식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명에 대한 변경도 검토를 제안 받았습시다. 상당수 탈락자들은 대부분 사업내용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무엇을 리서치하고 어떤 쪽으로 융복합을 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맥락이 읽혀지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부터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역할분담이 된다면 신청자격이나 내용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최근 3년간 예산액이 해마다 변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니까 올해는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의 사업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의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에 융복합지원사업이 반영된다는 전체로 했을 때 이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산이 감액되면서, 기존에는 창작실험활동, 올해의신작쇼케이스, 레퍼토리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제작의 일환으로 사업설명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융복합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 내용과 형식상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바람대로 신규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런데 지원심의 총평에 보면 이 사업이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창작지원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맞습니다.

○강윤주 위원

- 맞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국제교류 쪽에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국내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국내사업으로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강윤주 위원

- 어떤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전체사업 안에서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과정 중심의 창작지원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증액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전체 창작산실사업 중에 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의 예산배정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예.

○나종영 위원

- 아까 했던 지역 안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선정된 것이 거의 다 수도권입니다. 23개 선정 중에 지역이 3군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활발한데도 부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광역권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인천도 없고 서울, 경기도 대부분입니다. 23개 선정 중에서 3개면 10% 내외인데, 예를 들어 “30%를 선정한다”라고 하거나 영남권과 호남권 등을 선정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창작 실험에 대한 지원인데 예술성이 약하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23개 중에 20개 정도가 서울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실 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서 지역 쪽으로 안배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산실의 단계별 지원에 전체적인 기본방침이 예술적 수월성 중심의 평가가 되다보니까 심의위원들과 논의를 했을 때 지역을 인위적으로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나종영 위원

- 우리가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은 몇 %, 성별은 몇 %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항상 보면 부산이 없어요.

#### ○강홍구 위원

- 제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냉정하게 보면 전체 지원건수가 서울과 경기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현실이 그렇고, 개인적으로 굳이 질 나쁜 것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레벨이 안 되는 것을 지원해 봐야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지역안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월성 중심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 지역도 그것을 보고 분발해야 됩니다.

#### ○나종영 위원

- 지원을 해 줘야 분발을 하죠.

#### ○강홍구 위원

- 안 해줘도 분발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고려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서치나 워크숍도 좋지만,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 받고 싶다는 어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떠나서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저희가 차후에는 어느 정도의 개념적인 부분, 기획 의도를 요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아까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위원들이

‘창작실험활동’이라는 사업명도 제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융복합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융복합의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면, 이 사업이야말로 원래 의도에도 실험을 더 독려하는 차원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아까 심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원래의 의도를 살려서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탈장르냐 아니면 기존의 정례화적 기성장르를 핵심으로 넣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사업영역의 중복성에 대해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의결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저는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장르별로 구성이 되고 장르별 심의위원이 1명씩 구성되었는데, 특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르 분포도를 보니까 거의 장르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장르 안에서의 의견들이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장르 안에서 혼자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예술에 있는 분이 음악을 건드리겠습니까? 이런 심의위원 구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쪽을 추천하고 뽑아서 올리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수심의제를 구성해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러니까 세부 장르별로 2인 이상의 복수로 늘리자는 말씀이신가요?

○김기봉 위원

- 예.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실제 심의에서 장르별 배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예술 같은 경우 1차부터 1건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 차원에서 열어놓고 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2차 심의까지 후보를 올렸는데 오히려 장르위원님께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 중심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심의진행의 구성보다는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의 차원인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창작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 14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준비과정과 진출 유형을 구분해서 공고를 했고 7건씩 끌고루 응모를 했습니다.  
총예산 3억 원이 배정된 상태에서 1차 서류와 2차 PT/인터뷰 심의를 일자를 구분하지 않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적격자 지정 4배수 방식으로 섭의를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원결정현황에 나온 대로 14건 중에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4건 중에서는 불임에 나오겠지만 6건이 결격사유로 간주돼서 실제로는 8건에 대해서 서류와 인터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준비유형 2건과 진출유형 2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2억 7,030만 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금액 전체를 배정해도 무난하다는 판단 하에 신청금액을 다 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액보다 더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 3억의 예산액 중에 3,000만 원이 조금 밀도는 금액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첫 번째 안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업과 통합해서 잔여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73페이지부터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준비유형 2개와 진출유형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에는 결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필수제출자료 미제출과 타 지원사업에 신청 건이 있어서 중복으로 결격처리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심의 회피현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752호 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이 경우 뮤지컬을 준비한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평가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과정이 진출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에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할 때도 진출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이 준비자체에 대한 프로세스도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따로 강구를 한다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준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류평가로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말씀은 지금은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리서치나 해외진출하기 번역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집행항목들이 있어서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 환류 방법이 없는 지원제도라는 게 저희한테 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평가 환류 방법을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첫 번째, 두 번째 팀과 네 번째 팀의 지원액수가 거의 10배입니다. 1개 프로젝트에서 지원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준비와 진출 유형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준비는 최대 2,000만 원이고 진출은 최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조기숙 위원

- 보통 이렇게 1개 프로젝트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희경 위원

- 아까 답변하신 것들 중에 준비는 나중에 진출로 갈 수 있는 과정을 염두에 주고 선발하신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그렇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2팀도 예전에 준비로 진행이 되었던 팀인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아닙니다. 준비 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평가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이희경 위원님의 지적이 정당하시니까요. 예컨대 번역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번역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당연히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결과가 명시된 부분은 그렇게 환류를 하면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연창작부에서 어떻게 환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성과평가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4팀 모두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PT를 통해서 들어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국가에서 자기들 국가 기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현지화에 맞게 대분 수정을 한다는 등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작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홍구 위원

-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과 수도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에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도권과 정보의 격차도 생기고 레벨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응모를 해서 떨어졌으면 어떤 것이 합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내용도 공개되나요? 요청하면 공개하거나 참고 할 수가 있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정보공개를 통해서 합니다.

○강홍구 위원

-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가능합니까? 그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아직은 없습니다.

○강홍구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린 적도 없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지역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해 한번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 사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강홍구 위원

- 예, 이 사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사실 민원 등을 대비해서 전수검토의견제라는 것이 시행된 취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절차로 표준화시켜갈 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재단 등에서는 선정된 기획서를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선정된 건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지 않다면 선정된 건들에 대한 기획(안)을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말씀하신 지역이나 전반적인 정보공유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 위원

-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정보가 오픈되면 무슨 기준으로 심사 했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전체 지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원제도라는 게 늘 역동적으로 표현해야 하고 상황에 따른 접근도 해야 하는 것인데 제도 전체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니까 끊임없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선출 감사

- 우리 사업 구조들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뮤지컬 관련 장르의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창작산실의 해외유통지원인데 국제교류 쪽에서 되고 있는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뮤지컬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해외유통지원 이 사업만 놓고 볼 때 국제교류에도 이런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국제교류에서 여러 가지 장르별 해외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뮤지컬은 거의 연극 장르에 포함시켜서 일부 지원이 되지만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지원체도로써 의미는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연창작부가 국내 사업을 지원하는데 뮤지컬만 해외유통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내와 국제사업으로 굳이 나눈다면 역할분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창작산실 실험활동 일부, 쇼케이스, 올해의신작, 레퍼토리 등이 지원되고 있고, 해외유통지원 차원에서 공모로 3억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예경으로 지원하는 중국에 가는 K-뮤지컬 로드쇼를 진행하는 제도 정도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본부장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국제 쪽에서는 정확하게 뮤지컬 장르라고 명확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뮤지컬은 창작산실에 있어 신작의 부분이고 레퍼토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예경 쪽에 K-뮤지컬로 재교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중복이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예경의 사업과 이 사업은 병렬적 사업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협업도 필요하고 내용적으로 조정도 필요하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동일한 내용에 재정적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스크린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경과 협의할 때는 이것에 대해 중국에서 프로모션 작업이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개념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은데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김선출 감사

- 예경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3억 6,400만 원입니다.

○김선출 감사

- 그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지금 기획조정부의 예산작업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선정사업에 관한 질의는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준비’ 2건과 ‘진출’ 2건 등 총 4건의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실내가 덥고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753호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7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2개년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대본 발굴, 작곡분야 발굴을 통해서 2차년도에 쇼케이스 및 본 공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안건은 1차년도 지원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일간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총 1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1차 서류와 2차 PT/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고 1차 심의에서 8건을 선정하여 2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8건 중에서 총 5건에 대해서 1억 원을 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극작가 1,000만 원, 작곡가 1,000만 원씩 매칭 되어 온 팀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총 5개 단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 5건을 정하는 의미가 있었고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적격자 지정 3배수 방식으로 심의위원 후보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 지원결정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의결과는 8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팀은 극작가, 작곡가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분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 결격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1건만 결격사유로 처리가 되었음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오늘 본의 아니게 심의과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3배수로 올려서 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첫 번째는 분야, 그러니까 오페라를 선정할 때 처음에는 작곡분야, 비평분야로 올리셨는데요. 사무처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시다보니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동일대학의 동일학과의 교수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올라온 두 번째에는 서도민요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풀이 영성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도 창작오

페라인데 서도민요를 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지휘를 하는 분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가 되었는데, 지휘에서도 지휘자들이 계속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순위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사 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창작아카데미를 할 때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명을 올리면 5명이 모두 안 되는 경우, 저희가 시간도 촉박하고 지휘자들은 워낙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안 되는 날도 많아서 그렇겠지만요. 그렇게 5명, 7명이 모두 안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선정된 것을 보고 놀란 게 있는데, 이 건에 선정된 대본작가가 심사위원 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선정된 분이 심사위원 대본작가 풀에 있었다는 것은 미리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배제하고 2순위, 3순위로 갔겠지만 애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페라 사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심사도 하시고 본인들이 모두 신청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예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1차 기초분석에서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심의위원 풀에서 모두 섭외가 안 된 것은, 다시 풀을 추려서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마저 여의치 않다면 아까 실험활동 섭외처럼, 다원예술분야는 풀에 없더라도 유관기관의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든지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페라와 뮤지컬은 심의풀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제도의 전체적인 방침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 ○이희경 위원

- 제 생각에 그것은 공정심의부에서 풀을 제대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급박하게 연락을 받으니까요. 저는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섭외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명, 7명이 모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다시 재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심의의 시간이나 간격을 여유 있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공정심의부장이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타난 문제가 심의위원 구성과 사업신청과정이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면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 ○조기숙 위원

- 그리고 부탁도 촉박하게 해요.

○박종관 위원장

-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컨대 심사위원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결과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접수를 끝내고 6월 말에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6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어쨌든 심의를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촉박하고 모두 스크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결을 못 받으면 현장에서는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하다보니 접수도 5월 말에 끝내고 심의를 6월 20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일주일 전에는 심의위원들한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촉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심의위원 후보자들에게 전화는 누가합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저희 실무자나 부장들이 합니다.

○나종영 위원

- 풀에서 랜덤으로 5배수를 정하고 그 중 순위는 우리 위원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안 되죠.

○나종영 위원

- 위원이 순위를 다 정했으니까,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과 위원이 전화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위원님들이 날짜를 맞추시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는 날짜와 시간 등을 따져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위원님들이 하시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실무자들이 전화를 해서 “교수님,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간부들이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이미 순위를 5순위까지 정했는데도 하

나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는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그것은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공정성이 떨어지거나 부장이 전화를 해서 공정성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박종관 위원장

-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종영 위원

- 누군가의 전화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위원장이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이 무슨 심의위원한테 전화를 합니까?

○강홍구 위원

-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추천을 했는데 다시 해달라고 하니깐요.

○박종관 위원장

-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미봉책이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날 메일을 보내서 “내일 아침까지 해 주세요.” 그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강홍구 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5인 이상을 추천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미봉책이라도 당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창작 쪽과 향유 쪽의 방식은 조금 틀립니다. 향유 쪽은 예를 들어 무작위로 5배수를 추천받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미리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자들 중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 쪽은 무작위 추천이 아니고 3배수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해당 신청과 관련해서 배제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미리 풀을 만들어 놓고 배제할 분이 계시면 배제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 이 사안은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대상 지원결정의 건이니까요.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모으기로 하고 이 건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지역심의위원은 두 분이 같은 지역인데 이 분들의 지역에서 낸 지원 대상사업은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부분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원기구로서 쉽지가 않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원결과를 놓고도 비슷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안)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출 감사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차라리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을 뒤로 미루고 뒤에 있는 안전관리 부분을 먼저 처리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처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김선출 감사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안전번호 제755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기본계획(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번호 제755호 안전입니다. 안전명은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기본계획입니다. 94쪽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5월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매년 1월까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최초 시행연도라서 6월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확정해서 주무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임직원의 안전관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기본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5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사업장은 총 7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시특별 상 시설물이 2개입니다.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예산은 총 16억 원입니다.

안전전담조직은 나주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시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지역 시설은 경영전략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수도권지역은 예술공간운영본부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안전관리 추진 실적은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고 시설 중심으로 재난훈련을 해서 5년 연속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장 주재 점검은 하반기에 1회 수도권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사무처장 주재로는 9월과 11월 등 각 분기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전략본부장과 예술공간운영본부장은 격월로 시설점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도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인데,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설명을 받다 보니까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보수보강 계획의 주요 내용은 극장 쪽의 방수공사 및 안전그물망 설치공사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공통적으로 나주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전보건교육과 시설물의 재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에 올해부터 안전공시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안전공시에 재해현황을 공시하겠습니다.

본래 저희 시설물 중심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현재 시범적으로 문학분야의 집필공간 같은 경우 심의 기준에 '안전대책'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지원심의 단계의 안전관리 심의 기준을 반영하는 부분, 순회사업은 워크숍의 안전대책 및 재난대비 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점차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지훈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가 없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장소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결국 사무처장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안전기본계획에 문화예술위원회의 명령체계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직속으로 있든지요. 그런데 나주 지역과 수도권 지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괄적인 지휘체계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시설관리가 아닌 다른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별첨으로 나눠드린 안전기본계획의 5페이지에 안전전담 조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주 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나주 지역은 경영전략본부장이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할 것이고 수도권은 예술공간운영본부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별지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94페이지를 작성하실 때 앞에 사무처장이 있어야죠.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안전전담 조직 안의 제일 상위에 사무처장이 있는 것이죠.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예, 맞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위의 지휘체계가 사무처장이어야 되고 제일 먼저 사무처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예, 맞습니다.

○나종영 위원

- 수도권에서 있는 시설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술공간운영본부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이라는 말이죠.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예, 5페이지를 보시면 있는데 자료에는 도표까지 나오지가 않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나 위원님이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별첨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강홍구 위원

- 저도 여쭙보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안전예산이 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등 시설을 개보수 하는 정비예산만 잡혀 있고 그밖에 미술관, 인력개발원, 예술기록원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은데요.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간략하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4쪽의 안전예산을 보시면 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르코와 예술극장 외에 말씀해 주신 미술관, 개발원 등 다른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강홍구 위원

- 왜 표시를 안 했어요?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세세하게 다 하다보니까 양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서 한 가지만 묻는다면, 전담조직이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숫자의 증감은 작년, 올해, 내년 대비 어떻습니까?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그 부분도 별첨자료 6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안전 전담 인력의 안전조치 인력과 안전 기획부서 인력이 있습니다. 기획부서 인력은 사무실 근무인력이고요. 안전조치 인력은 현장근무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조치인력 2명, 안전기획부서 인력8명이 2019년에 16명, 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증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거기에 대응해서 안전기획부서 인력은 1명을 늘리셨고, 안전조치 인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렸네요.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예, 안전을 강화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저희가 5년간 안전사고가 없는 기관으로 지낸 건가요?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를 잘해서 10년, 더 이상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획을 튼튼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강지훈 재무관리부 전문위원

-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하나 남은 의결안건으로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754호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략히 정리해 왔습니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후보단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현재  
1,040명의 위원 후보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보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관리 부재입니다.  
모집부터 선정·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공모하고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엑셀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별 담당자도 시스  
템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 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했을 때 오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  
님들이 순위를 정하실 때 전문성 확인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

력 확인이나 전문성 검증이 어려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위원 구성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1,040명 확정 부분은 2018년도에 매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위원 후보단 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세부적인 정보 보완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심의위원 후보단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회, 단체나 선정위원회 추천을 했을 때 타천에 의한 피추천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분의 경력사항을 업로드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후보단에 대해서 온라인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심의위원 후보단 모집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개별적으로 심의위원 풀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등록제로 바뀌어서 양질의 인력풀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모집분야도 개편을 하고 선정위원회 운영방식도 개편해서 상시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 관련 임기제를 폐지하고 심의총량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하단의 주요 개선방향은 위의 내용과 중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심의·전문가 온라인 등록제 운영입니다.

심의·전문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중 상시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등록제로 운영하고 전문경력이나 검증서류를 전산화해서 다각적 검증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서 후보단 선정여부나 안식년 기간, 인적 정보 현행화를 통한 지속적인 DB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 심의·전문가 모집의 경우 7월 중에 심의·전문가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고, 총 7개 분야 59개 세부장르로 확대해서 모집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 심의위원 후보단은 이미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이 분들에게 안내를 드려서 정보 현행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심의위원 후보단 회원으로 등록하고 저희 시스템에 맞게 그 내용을 현행화 시켜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제도 개선입니다.

신규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의 필요시마다 모였던 선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 장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인력을 보완·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무처 편성기준으로는 장르별 신청인원이 20인 미만일 경우 분기별 일정을 조정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심의·전문가 모집 전문분야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

부장르 통합 및 확충을 했습니다.

아래에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오페라창작산실이나 뮤지컬 해외유통지원, 온라인확산지원, 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다원예술지원 등 저희 사업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심의위원 후보단 시스템은 풀 자체가 사업의 심의위원을 제대로 선정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문화일반 분야를 세분화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단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신규로 저희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부분을 보시면 음악부분에 음악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세부장르가 아래 ★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할 때는 아랫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하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연극/뮤지컬 부분은 기존에는 평론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면 연극과 뮤지컬로 나누는 방향으로 세부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전통예술 쪽은 기획/제작을 추가했습니다.

문화일반 부분에는 다원이나 무대기술, 지역문화, 축제기획, 국제교류, 언론·방송/홍보, 유통/투자, 법률/재무 등 8개 분야를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실 때 신규로 심의위원들이 등록하시게 되면 최대 2개까지 복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최대 1개 또는 2개까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분야의 시를 선택했다면 시각예술부터 전통예술까지의 분야는 선택 페이지가 죽어버리고 문화일반과 문학 분야만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분야의 다른 분야를 추가로 선택하시거나 문화일반에 해당되는 전문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문화일반을 선택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일반 분야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문화일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에서는 그 부분에서 각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르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럼 점을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임기제도 폐지 및 총량제도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임기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매년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운영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제를 없애고 10회가 되는 순간 안식년 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게 공정한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고, 임기제를 폐지한 대신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회가 되는 순간부터는 해당 심의위원은 해당 사업연도 플러스 차년도 기간 동안 안식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90페이지 표를 보시면, 저희가 조금씩 심의위원을 확충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제를 적용할 경우 심의위원을 운영 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순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에 오픈을 시켜서 9월 말이나 10월 중순까지 계속 신규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1월부터 2020년도 사업 공모심의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 전에 각 장르별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2020년 신규 심의위원 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심의위원 후보단을 2배 정도로 확충해야 하

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시면 유관기관의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늦은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나 영화진흥위원회도 본인인증이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첨부파일 등에 대해서는 증빙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애초에 모집자격만 판단하고 선정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부 평가결과 수용도가 매우 낮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제도 자체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단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비해서 저희는 랜덤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평가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절충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심의위원 후보단 1,040명 중에서 200명에서 250명 정도는 서류나 자신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류를 선택하셔야 하고 각각 2개의 분야를 선택하셨으면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해당 경력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취지를 말씀드려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러나 저희가 꼭 모시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직접 등록이 맞지만 이런 것이 정말 힘들다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받아서 담당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메뉴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식화하기보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식화되는 순간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자체는 운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위나 콘텐츠진흥원도 이런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등록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는 것을 대신 입력했을 때 공정성에 손상이 있나요?

####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정보현황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2가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텐데요. 이후에도 계속 본인의 정보를 다 열었는데 본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직접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해서 수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기존의 문제를 병행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쭙보는데, 기존 심의위원들도 역시 심의위원 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나란히 병행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프라인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입력해 준다고 공정성의 손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등록제로 가기 전에 기존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 것 아닙니까? 계속 유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1년이 임기고 1년을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심의위원 풀은 2020년 1월에 끝납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때의 이야기고요.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사전등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선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현장 추천을 하는 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1,040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취지를 말씀드려서 독려를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1,040명은 엄격하게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종영 위원

- 자동적으로 빠지겠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그렇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제도보다 운영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 부장의 이야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진위나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심의위원 본인을 사전등록제가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감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할 때 받을만한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복잡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50%씩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 타천제도도 병행하면서 사전등록제로 가야죠. 실험적으로 사전

등록제를 한다고 했을 때 1,040명이 다 등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콘텐츠진흥원이나 영진위도 모두 예술인이지만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기숙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방안은 심의방식을 랜덤하게 할 때 유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먼저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심의방식인 것 같아요. 이것을 랜덤하게 뽑아서 순위를 결정하라고 할 때만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을 랜덤하게 뽑거나,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는 아직도 알아서 5명을 뽑아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순번만 매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부터 먼저 되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책임심의회가 힘드니 랜덤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럼 그 중에서 1, 2, 3, 4, 5도 그냥 돌리시죠. 돌려서 랜덤하게 할 때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랜덤하게 돌렸을 때 문제는 아까 이희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선정하게 되고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희경 위원

- 저는 랜덤하게 돌리기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분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음악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거나 정말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름아름해서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단 운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몇 년 전의 경력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알수는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스크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음악 같은 경우 세분화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에 어떤 분이 적절하다는 것을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견을 내실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랜덤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안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고 2가지가 결합된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취지로 담겨져 있고요. 아까 조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의구조와 심의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이 제도와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별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의제도의 문제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서 공정심의부나 감사부 등 저희 내부에서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서 심의구조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리의 개선안 같은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혁수 위원

-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 문제는 공정심의부에서 김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심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화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개선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김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폴 안에서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로 답아서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수 위원

- 그것은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행위입니다. 제도 자체를 망가트리는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내부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규정에 들어가서 의결을 해야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안을 저희가 만들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전화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타기관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이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보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정심의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개선안 즉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드세요.

○강홍구 위원

- 저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물론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셨듯이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선정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예술을 보면 세부 장르가 나뉘져 있는데요, 시각예술 일반은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미술 분야나 작품 위주보다 관계자나 활동가로 취급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런 것이 명료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 모두 개인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의 팀으로 심사위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숙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심의제도 전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의결안은 후보단의 숫자를 늘려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할 2020년도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심의위원 인력 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올라온 의결안의 핵심입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윤주 위원

- 저는 성평등소위에서 나왔던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의 자기 검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심사위원 풀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거나 스스로 지원해서 후보가 되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자기 검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나종영 위원님께서도 “훌륭한 사람이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성만이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심사위원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도 청년들도 자격조건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 분들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기검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쟁이 심할 텐데 내가 될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심사위원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자기 검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종의 장애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하실 때 마땅히,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을 독려해서 심사위원 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혹은 홍보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이 분들이 정보를 알고 긍정적인 관을 가지고 스스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더 확대해서 자천, 추천 제도를 모두 운영할 때 심사위원 인력 풀의 구성에 여성, 지역, 연령의 할당제 문제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사전등록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본인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등록제를 하면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사전등록제를 했을 때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죠.

#### ○김기봉 위원

- 1년 반 가까이 예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후회하고 제일 절망했던 부분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 스스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위원이 되자마자 블랙으로 생겨난 문제들 때문에 심의위원 전체를 재구성 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을 자천, 타천을 통해서 받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내부 추천을 했어요. 문화일반 분야에서는 같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위원님이 내부 추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해서 들어온 풀 안에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연도에는 그래서 그나마 전년도에 심사한 사람들은 후순위로 넘겼는데, 새로 위원이 되신 분이 지난번에 심의하신 분들을 다시 우선순위로 매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계속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왔어요. 그래서 밖에서 바라볼 때는 “지들끼리 해 먹는다” 라는 것이 하나의 여론으로 잡혀져 있어요.

사실 예술위가 지원기구로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예술위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전면적 재구조,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르크혁신안에 이 문제를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혁신안을 만드는 3~4개월 안에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무처 직무분석부터 시작해서 예술위를 리빌딩 해야 할 수도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뒤로 미루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현장과 이해관계 당사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라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전자등록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여부분은 등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심사를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자천과 타천으로만 구성이 되어 졌을 때 저는 경험해 보니까 매우 풀이 빈약해 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 자천, 타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전문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요. 아까 적합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한다고 했지만 이 심의위원 풀에 대해서 저는 재공모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등록을 하더라도 전자등록이 빠트리고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동화시스템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같이 결합될 때 전자등록 시스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으로 가자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김기봉 위원

- 사전등록제를 보완하는 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니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종영 위원

- 저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다른 장르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문학부분의 7개 분야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했을 때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 이상이 걸렸는데, 다른 장르에서 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니까 엉터리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전등록제로 했을 때 미달된 것이 들어올 때 어떤 여과장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몰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서 사전등록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어떤 여과 과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또 개인이 여과 없이 사전등록을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각 장르의 선정위원회에서 개선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안에 100% 바뀌었을 때 큰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금년에 후보단을 언제 구성해야 합니까? 내년이죠? 올해입니까?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11월 중순부터는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집기간은 10월 중순까지 하고 10월 중순부터 10월말 사이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사무처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서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 현재의 제도하고 개선했을 때 사전등록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논의를 조금 더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많아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위원님,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선출 감사

- 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풀도 유효하고 이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저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김선출 감사

- 평상시에 항상 이 풀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을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은 분기별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틀을 보장하고, 특히 정보 관련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나종영 위원

- 신규 시스템을 통한 상시모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 등록을 해야죠.

○강홍구 위원

- 이야기를 해서 등록하겠다고 했어요.

○나종영 위원

- 그렇게 하면 사전등록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죠.

○강홍구 위원

- 기존제도를 보완해서 사전등록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조기숙 위원

- 나 위원님, 일단 이것은 DB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종영' 이라고 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심의를 했는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개인정보도 없고요.

○김선출 감사

-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개인들한테 맡겨버리면 좋은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옆에서 추천을 해서 등록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이 풀을 튼튼하게 갖춰가는 것, 그리고 정보 보호법에 맞게 하는 것, 상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분명히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해가 되셨죠?

○나종영 위원

- 나는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혼란스러운 게 이것은 선정방식의 보완이 아니라 개선이라니까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 지금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 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등록제로 했을 때 좋은 분들이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추천제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됐을 때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수집단의 분들이 심의등록에 들어올 수 있는 홍보방법이나 보완방법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의 확보방안이나 추천제를 병행하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은 심의제도와 맞물려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 가장 좋은데 이것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번 달에 진행하자는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의 의견을 받고 김기봉 위원님 얘기까지 포함해서 거시적인 분석을 아까 해 주신 건데 지금은 분석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응이 중요한 때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1월에 시작될 정기공모까지 지금의 심의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지금 공정심의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낸 것이거든요.

### ○나종영 위원

- 정 부장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기존의 풀을 임기 전까지 가져가고, 보완이 아니라 사전등록제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현재의 제도에 플러스해서 사전등록제를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야죠.

###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기존의 풀 1,040명 중에 어느 정도 내용이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는 서류를 가정했을 때 그분이 로그인만 할 수 있게 본인인증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과 다르게 2개의 분야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을 드려도 정말 노트북을 갖고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는 것 외에는 도와드릴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수입력사항을 정말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년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필수이력사항으로 데뷔연도 정도를 넣는 다거나 어떤 내용으로 데뷔를 하셨는지 그리고 전문경력이 무엇인지 등 정말 필수입력사항만 넣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타기관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고 슬림한 구조입니다.

### ○나종영 위원

-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왜 기술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나종영 위원님의 걱정은 다 좋은데 전문성이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이 환갑을 넘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의위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그럴 경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현재 기존에 등록되신 1,040명은 일단 선정이 되신 분들 중 경력사항들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280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경력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720명 중 경력사항이 끝까지 입력되지 않는다면 보완 후에 추후 적격자 선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간단하게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으로는 “지금 있는 1,040명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잖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만약 안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서류를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 1,040명은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사전등록제로 하면 그 사람들은 빠지는 겁니다.

○조기숙 위원

- 왜 다 빠져요?

○나종영 위원

- 280명밖에 안 한다잖아요?

○강홍구 위원

-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나종영 위원

- 해도 안 한다니까요.

○강홍구 위원

- 해도 안 한다는 예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안 되면 빼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기준미달에 대한 여과장치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부족함을 메우는 단점의 보완장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나종영 위원

- 그렇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자천과 추천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결될 일이고요.

○나종영 위원

- 그 말이 없다니깐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강홍구 위원

- 여기에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 여성, 지역, 연령 등 할당제를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미달의 여과장치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자천, 추천제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도 하면 되는 겁니다.

○나종영 위원

- 그렇게 중요하면 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니깐요.

○박종관 위원장

-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지 왜 다시 올라와요?

○강홍구 위원

- 다시 올라오면 11월에 심사를 못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송구합니다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랬다는 겁니다. 6월 말에 심의제도를 개선할 시간이 없어서 심의인력 풀을 확대하고 공정성을 투명하게 확보해서 가자는 안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안됩니다. 의결을 빨리 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조기숙 위원

-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동안은 블랙리스트라는 프레임 때문에 대충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지원제도 개편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기봉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의견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여성, 지역, 연령 등 할당제 문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천과 추천제도 함께 운영을 하시고, 기준미달에 대한 여과장치도 준비하시고요. 지금 있는 심의인력 풀 중에서 약 300명 미만의 잔류인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위원을 확보해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의결을 해 드릴 텐데,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제도의 획기적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어느 순간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처장님의 의견입니다. 올해 해서 11월 달에 적어도 현장에 주는 메시지로 이러이러한 지원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6월 말입니다. 10월까지 4개월이 남았습니다. 2년의 임기동안 4개월 안에 제도를 못 바꾸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저희가 비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심의제도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웁시다.

○강홍구 위원

- 적극적으로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심의위원의 여성, 지역, 연령 등 할당제 문제에 대응하시고, 자천, 추천 제도를 함께 운영하시고, 나중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준미달에 대한 여과장치를 마련하시고요. 기존 심의위원 중에서 인력 풀을 가지고 갈 1,040명 중에서 본부장의 판단으로는 약 300명 미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연속해서 가고 추가 인력 풀을 받는 것으로 수정해서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드릴게요.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에 관해서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무처가 중심이 돼서 7월에 열리는 위원회 때 진행된 안을 놓고 논의해서 2020년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이 위원회의 요구입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지역, 연령 부분은 심의위원 후보단을 신청 받을 때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선정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이고, 저희 지원심의처리기준에 심의위원 구성에 여성, 지역, 연령을 할당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천이라는 것은 모셔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모셔오건 직접 등록하건 본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미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심의위원 1,040명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신 분들이고 새로 바뀐 시스템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선정위원회를 열어아 비로소 신규 회원으로 등록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정리하면 1,040명은 이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1,040명에게 연락을 드릴 것이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이 시스템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과 지원심의제도는 별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3개월 이상의 모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의결해 드리는데 지원심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관련해서는 7월 정기위원회 때 개선(안)을 내고 2020년 지원심의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해 봅시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하다가 안 되면 7기 위원회가 연속해서 받으면 될 것이고 6기 위원 중에서 계속 위원직을 승계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장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원제도를 안

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셨죠?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나종영 위원

- 이해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 장르별 평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화일반은 평론이 없나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문화일반에는 별도의 평론은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문화일반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강홍구 위원

- 문화평론가가 있기는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문화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폭넓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강홍구 위원

- 평론을 넣어요. 문화평론을 하나 넣으면 되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알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국제교류, 언론·방송/홍보, 유통/투자, 법률/재무는 문화일반에만 포함되어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술 전체에 포괄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문화일반이 심사하는 것은 신나는 예술여행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국제교류부터 법률/재무는 공통분야로 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7개 분야로 만들 때는 선정위원회를 고려했고 만약 다른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각 쪽이나

문학 쪽 사업이라도 문화일반 쪽에서 해당분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표를 구성한 배경을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너무 세분화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문화일반에 평론을 넣자는 것인데, 넣으시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다시 의안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754호 2020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기본계획(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의결안건은 끝났고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사무처 후속조치 결과보고와 관련된 보고들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겠습니다. 송시경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자료 152쪽입니다.

지금 정영순 부장이 사과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152쪽과 사과문은 메일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안건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팝업씨어터> 관련 후속조치 추진 경과입니다.

추진경과와 오늘 핵심인 사과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이후 사과문에 대한 발표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위원회가 관련한 블랙리스트는 21건에 3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팝업

씨어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당시 가장 어린 연출가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팝업씨어터라고 해서 연대했던 130명의 현장 예술인들이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님이 작년 11월 달 초에 오셨는데 바로 뒤인 11월 13일과 올해 1월 22일 차관님이 대학로에 오셨을 때 위원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날 문화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백서를 출간했을 때 위원장님이 가셨는데 그때 이 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공문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공문까지는 보내지 말고 실무선과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4월 말까지 조치를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영순 부장이 그 팀하고 7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2017년도에도 1번, 그리고 2018년도에도 최창주 위원님이 직무대행을 하셨던 시절에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2018년 11월과 12월에 거쳐서 직원에 대해서 처벌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예술위원회가 가장 정점에 있고 진정한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식으로 한번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당사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나고 별지로 나눠드린 사과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은 피해당사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7차례 만나면서 본인들도 이것을 치유의 과정으로 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작성할 때는 문체부가 양측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배포해드린 이 사과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과문에 대해서는 6월 20일 현장소통소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았습니. 그때 현장소통소위에서 2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회 관련자 징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 중에서 피선적인 후속조치나 관계회복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과문 발표 방식에 대해서 협의한대로 예술위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대면사과도 하고 대자보도 붙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발표와는 별도로 향후에 관련된 토론회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주신 부분을 담아서 사과문이 완성되면, 7월 첫 번째 주에 위원장님과 팝업씨어터 측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대자보를 대학로예술극장 외벽이라든지 씨어터 카페, 예술가의 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 외벽이라든지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었습니. 이 부분은 대관을 하는 극단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대관을 하면서 쓰는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행사에 대한 홍보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 위원장님과 원하시면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위원회에서도 원하는 직원들, 특히 2015년도 당시에 행위로 관여했거나 알았던 직원들도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와서 공동 사과를 하면서 위원장님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직 저희들이 내용은 모릅니다만 팝업씨어터 측은 진정한 현장의 동반자 관계로 나가자는 방향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열람한 이후에 다시 드리면 되는 것이죠?

보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에 앞서서 먼저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봉 위원

- 저희 현장소통소위에 팝업씨어터 문제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이 계셔서,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팝업씨어터와 관련해서 직원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문건에는 직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분과 관련 현업과의 격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전히 기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원들에게 어떤 인사 조치를 했는지를 명시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마련하고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명기해 줘야 “예술위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실무의견입니다.

사과문의 마지막 페이지의 파란색 부분이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소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 사과문 초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블랙리스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는 문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팝업씨어터 측이 세월호의 경우에도 4~5년이 지난 다음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기억하는 사업도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후속조치’라고 했습니다.

또 팝업씨어터 측은 이 자체가 위원회와 팝업씨어터 측이 현장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로써의 “관계회복의 길” 이라는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리에 대한 사안인데, 사실 저희들이 총 26명이 블랙리스트에 관계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감사님이나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해서 23명의 직원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23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10명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재직 중이 아니라 6명은 퇴직을 하셨고요. 선행처분으로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1명이 이루어졌고, 징계시효가 완료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에 대해서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정직이 5명, 감봉이 2명, 견책이 4명이고 실제 징계는 아닙니다만 주의가 2명으로, 다른 기관이나 문체부보다 엄청하게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21일에 징계위원은 누구고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혁수 위원

-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송시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의 입장, 또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이 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개별 단체별로 사과를 요구할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일단 팝업씨어터 건물은 실무선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건이고 현장소통소위 개최 전에 팝업씨어터 측과 7번을 만나면서 이 문안에 대해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고, 실제로 이행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건에 35개 사업이 관련되어 있어서 향후 지금처럼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회와 현장과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요청이 오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 ○나종영 위원

- 굉장히 난감하세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4년 전의 일입니다. 전기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그야 말로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향을 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유리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다 적시를 했는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개별단체에서 사과하라고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위원장이든 사무처장이든 그런 부분은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을 앞세워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내용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위원들과 사과문 내용을 협의합니까? 사과문 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정복자가 항복자에게 하는 것이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까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블랙리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재발방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6기 위원들이 들어와서 연극계와 관계회복에서 실패한 게 없는데 왜 관계회복을 해야 됩니까? 일단 사과문 내용은 공동으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처를 안 주고 갈 수 있

도록 해야죠. 제 생각에는 사과문이 아니라 마치 정보수집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진정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 ○강윤주 위원

- 아까 독일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되짚어 보니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까 송시경 본부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과를 받는 사람들이 사과라고 생각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혁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개별 단체들이 같은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과 무관한 6기 위원회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예술위원회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시간동안 그 전의 예술위원회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면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혁수 위원

- 물론 논리적으로는 강윤주 위원님과 나종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종영 위원님은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신 분인데 엄청 억울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역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전국지역문화재단 회장이었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단체로 찍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과를 받자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나종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건별로 어떤 단체가 또 요구를 한다면 거의 비슷한 문구로 사과문을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단체명만 바꿔서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단체의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당장 받고 싶은데 단체들은 다 받고 싶을 겁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강윤주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정말 요청이 온다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윤주 위원

- 예, 추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예술계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혹여 한두 번 더 사과를 하게 된다면 예술계 내에서도 “예술위가 정말 미안한가보다.” 이 정도 공감능력이 있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는 닦쳤을 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나종영 위원

- 사과하는 것을 독일의 문체에 빗댔는데, 그런 것은 맞지만 사과문 내용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그 부분은 블랙리스트 백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대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지말지와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사과를 한다는 입장에서 문안을 협의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문 마지막에 팝업씨어터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취했던 후속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현장소통위원회가 구성된 계기, 심의업무공정처리규정도 그렇고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신고하라는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변호사를 불러서 서울과 나주에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율운영협약도 예술위원회가 예술현장의 동반자적 관계로 비전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정부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봉 위원

- 나종영 위원님과 인식이 다른 부분이, 저희는 사과를 했지만 현장은 아직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했다고 종료 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끝나는 것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사과를 합니까?

○김기봉 위원

- 우리가 사과문을 낭독할 때 현장은 사과를 안받겠다고 저희들 사과문 낭독하는 데에다가 사과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혁신TF 민간위원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강홍구 위원

- 나종영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위원이 되었다고 해도 끝없는 사과를 한다는 말인가?” 싶습니다만, 냉정하게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6기 위원들은 사과가 운명이고 원죄입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문을 협의하는 것도 쓰는 입장에서 보면 다소 굴욕적일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협의를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해소되고 사과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다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과가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강홍구 위원님, 나종영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6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이 납득할 만큼의 사과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과문으로는 길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7차례에 걸쳐 현장과 위원회 본부장과 부장이 합의한 내용이니까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확정되는 대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정해진 수순대로 현장에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서 관계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도 의견을 보태자면, 추진경과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과가 거둬지는 과정이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의 감정과는 조금 배치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신들의 동료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과를 한다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굉장히 어렵게 논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위원회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그렇게 하죠.

○박종관 위원장

- 제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보고를 문건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종영 위원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체육기금사업 등 저희가 꼭 보고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 결정의 건과 체육기금 사업인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계획(안)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계획(안)은 저희가 문건으로 받으면 될 것 같고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 결정의 건은 조금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될 내용이니까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강윤주 위원

- 성평등소위원회에서 첫 번째 오픈테이블을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1분간 공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성평등예술위원회 1차 오픈테이블이 7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분석한 내용, 그리고 영국예술위원회 사례와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3월부터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한 결과를 그 자리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지원을 받았는데 50여명 넘게 신청을 했고 신청을 안 하시고도 오시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청년예술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신 분이 계시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현장소통위원회에서 청년예술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네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청년예술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종영 위원

-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유인물로 보시고, 그날 박종관 위원장님과 전효관 사무처장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출석으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위원이 아니신데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수정하세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미래전략소위 개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과장

- 자료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미션)은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게 우리기관 정관 제2조에 있으며 우리 기관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비전 신규 수립은 저희 기관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미션 이하 비전선언문, 핵심가치, 전략목표, 전략과제까지 모두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기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서 환류 하는 과정까지 만드는 게 본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비전체계 새롭게 수립되면 이 자료는 대내외 각종 자료의 맨 앞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평가의 기초로 쓰이게 됩니다.

작년 초 아르코혁신TF에서 23개의 혁신의제를 도출했고, 우리 기관에서는 소통혁신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소통혁신팀에서는 미래전략소위원회와 함께 70여회 의견수렴, 매달 전 직원 보고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월 위원회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위원장님의 의견과 문화비전2030, 새 예술정책 등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서 현재의 안까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전은 2013년 2월에 의결된 비전2020체계입니다. 이후 예술창작과 복지예산 확대되고 2016년도 초에 변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해

서 현재의 비전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10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지난 10월에 보고 드렸을 때 예술창작 향유 가치확산 등 5가지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보고 드렸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것은 단순히 창작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이나 신규 사업추진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예술위원회 공정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현장과 소통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제대로 어필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수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취임이후 사무처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지금의 비전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전략체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가치를 보다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3가지로 창의, 나눔, 확산 등 사업 중심으로 핵심가치를 설정했었는데 이를 변경해서 설립목적에 근거한 수월성, 접근성과 함께 새롭게 예술위원회가 요구 받고 있는 다양성, 미래지향성, 공공책임까지 5개 핵심가치로 개편해 보았습니다.

핵심가치 아래 단순히 전략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략목표에도 기본전략이 있고 사업전략과 추진기반 등 3개 체계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전략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인데요. 과거에는 예술위원회라고 하면 예술창작이 항상 맨 앞의 전략목표로 두었습니다. 독립제였던 진흥원에서 위원회체제로 전환한 이후 민주적 합의 구조로 운영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조적인 불안을 평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예술의 끊임없는 창조 뒷받침입니다.

기존 아르코혁신TF를 통해서 요구받은 예술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신설하되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국제교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창작이나 국제교류 차원의 지원이 아닌 국가가 터널을 뚫는 방식의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도 본격적으로 예술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써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훌륭한 예술을 모든 국민에게 전달입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전략과제인 기존에는 예술위원회에서 지역으로 예산을 분배해 주는 방식이 지역예술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치 체계의 파트너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조금 형태의 문화누리카드나 문화순회사업 등이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장애물 해소 수단으로써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기존에는 기부금 모금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을 예술가치의 공감대 형성을 주업무로 다루는 역할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가-국민연결 플랫폼 강화입니다.

예술위원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극장, 미술관, 예술교육원 등 3개 시설의 역할이 예술가의 뛰어난 창작물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정체성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술의 새로운 미래선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예술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들, 예를 들어 융복합다원예술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창작과 향유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남북예술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입니다.

예술위원회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적인 재원확보, 지속적인 기반 혁신과 함께 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아레나를 선정하고 정부에 먼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현재까지 진행된 안이고요.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풀버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7월 달에 보여드리고 의결 전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핵심가치 위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비전2020 같은 경우도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셨는데요. 그 역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미래전략소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향후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제로써 미래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이 자료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현장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예술위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관 중장기 전략소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박종관 위원장

- 7월 말 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을 검토하고 8월 또는 9월 정도에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제 직무수행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코비전2030을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쏟고, 미래비전TF 위원님들과 숙성시킬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늦었으니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짧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 수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문체부고 위원회가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1억입니다.

문학분야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기고 파급 또한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출판사들이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이 창작해서 발간한 도서를 사후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 도서보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도 중반에 이 사업을 이관 받아서 진행했고 작년에는 2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1,200여종의 책이 들어오면 그 책을 전부 읽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2달 가까이 걸리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심의회는 39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선정 결과표를 보시면 1,287종이 신청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결격을 제외하면 1,240종입니다. 그 중에 164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정제외도서입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추후에 서지정보 유통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은 도서로 확인이 되어서 선정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행히 예비도서를 선정했기 때문에 예비도서로 승계가 돼서 지원이 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시면 출판사별 선정 종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정 출판사에 지원이 몰리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20종, 그리고 분기별 5종, 장르별 2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비나 문학동네 같은 출판사들이 다수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출판사들한테 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출판사 선정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출판사가 14.6% 정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첫발간은 22.6% 선정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선정된 목록과 심의 평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를 7월 26일 금요일에 잡으려고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에 무사히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5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회의 종료)